

용화사 미륵불 보호 방안 시급



부안 용화사 미륵불입상이 손상돼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토지주 비협조로 관리에 난항

전북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형 미륵불인 전북 부안군 용화사 미륵불입상(전북유형문화재 제117호)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려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화사 미륵불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양 어깨에 걸쳐 입고 있는 섬세한 옷의 주름이 특징이다.

이 미륵불은 사암으로 조성돼 강도가 약하고 철분이 많이 흘러내려 많이 손상된 상태이다. 또한 산성비 등의 영향으로 불안(佛眼)의 눈 주위 옷의 주름의 마모가 진행 중이고 미륵불 뒤쪽은 손상이 심해져 보호각 등 특별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화사 주지 지원 스님은 "미륵불이 용화사 경내와 경계지점인 사유지에 자리 잡고 있어 토지주 허락 없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라며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축대의 건축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2층 형태의 전각이 있었으나 토지주와의 소송으로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며 최근 석축사업을 추진하던 부안군이 토지주의 제지로 예산을 반납하기도 했다. 부안군청 공무원들도 토지주가 살고 있는 부산까지 직접 방문해서 방안을 상의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현재는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륵불 뒤편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

에 처해 있으며 주변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돌과 쇠붙이 등이 널부러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찰이나 군청에서 미륵불이 자리 잡은 토지의 일부만이라도 매입하는 방안이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경내로 이윤하고 보호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안 용화사미륵불은 백제 의장왕 2년 개암사에 주석하고 있던 묘연왕사가 백제의 국운이 쇠퇴하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백성을 제도할 목적으로 조성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조선시대 송유역불정책으로 땅속에 매몰돼 있다 150년 전 발견돼 많은 사람들의 기도처로 자리 잡아 오고 있으며 지금도 마을이름을 '미륵골' '미륵동'으로 불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근처 군부대 사격장 이전 논란

고창 문수사 수행환경 훼손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서육리에 소재한 국방부 소속 육군기학교 학교 전차포 사격장을 전북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로 이전하기 위한 부지 조사 용역이 진행돼 고창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전차포 사격장 이전예정부지는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지정돼 보호 받고 있는 문수사 단풍나무숲과 불과 1k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생태계 훼손은 물론 문수사를 비롯한 인근 사찰의 수행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육군기학교 전차포사격장이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일대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선정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12일 육군기학교학교로부터 정식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법만)는 이에 대해 지역 교구본사인 금산사는 물론 전국 교구본사 및 불교환경연대 등과 함께 천년고찰 문수사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도 "육군기학교학교 전차포사격장 고창이전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계획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즉각 철회하고 고창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희망찬 불교 미래를 준비한 자리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양성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스카우트 불교연맹 창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지도자 양성 교육을 7월 22~24일 2박 3일 동안 전남 순천시 청소년수련소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설됐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세계의 청소년과 교류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지닌 청소년 불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한국불교를 널리 홍보하며, 시대 변화에 앞장서는 희망찬 불교 미래 준비에 훈련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지역 사찰 스님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길상사 주지 도제 스님과 대원사 주지 정륜 스님, 조계종 광주전남 전법단

총무 동화 스님, 연화사 주지 지원 스님 등 광주전남 지역 사찰스님과 사찰 단위의 불교계 활동가 3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입소식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스카우트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은 야영법, 매듭법, 응급처치, 스카우트하이킹, 나침반 활용법, 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도제 스님은 참가 소감을 통해 "스카우트 교육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불교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스카우트 지도자 과정 이수자들은 향후 국내외 스카우트 대회에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이 개최한 지도자 양성교육에서 참가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승려노후 수행마을 불교계의 모범으로 만들겠다"

차문화체험관 준공한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승려노후수행마을은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승려노후 복지부분은 종단을 비롯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선운사는 스님들이 평생을 무소유로 사시면서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신 노스님들을 위해 승려노후수행마을을 3년 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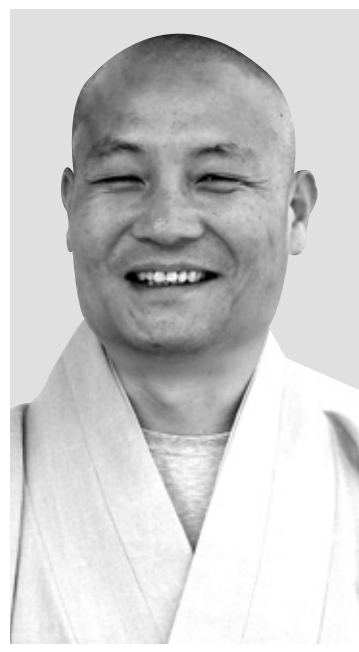
7월 18일 선운사 노후수행마을이 조성중인 석상마을에 차문화체험관 준공식을 마친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사진)은 승려노후수행마을 조성사업이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법만 스님은 "준공식을 마친 차문화 체험관은 선운사에 산재한 약 10만평에 이르는 녹차밭을 활용해 선운사를 찾는 사람들이 차를 직접 따고 만들고 마시기도 하는 체험 실습과 포교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노후수행마을이 조성되면 입주할 노스님들께서 지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람들과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담도 나누고 수행을 지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입주하는 스님에게 입적 때까지 안정된 주거와 수행처뿐 아니라 매일 수행연공 등을 제공하고 지역 복지·의료시설과 연계해 간병, 수발 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마을 안에 마을회관도 건립하고 도서관, 휴게실, 다각실, 물리치료실 등 스님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필요한 재정은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사찰 재정의 투명화와 공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승려복지사업에 출연하고 보은염 판매, 선운사 차, 지역특산품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수익모델의 창출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려노후 수행마을이 선운사 뿐만 아니라 타 사찰에서도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북평화통일 기원... 화합을 다지다

완도 수향사 만등대법회

지역불교활성화와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대법회가 완도에서 열렸다.

완도 수향사(주지 벽해)는 완도고금면 수향사 특설무대에서 '국운융창 및 남북평화통일 기원 만등대법회'를 7월 24일 개최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 백양사 주지 시공 스님, 수향사 주지 벽해 스님을 비롯한 완도지역 불자와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각 사찰별 방생의식과 2부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제3부 육법공양(광주 미륵사) 및 법요식에서는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법요식에 이어 제4부 전통불교영산회의 전통작법의식이 진행됐다.

법요식에서 벽해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수향사 도량에서 많은 불자들이 오색등불을 밝혀 부처님



수향사 만등대법회가 7월 24일 불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전에 나라의 안녕과 인류의 화합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됨을 염원하는 법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오늘의 작은 등불이 통일을 이루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 이어 시공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문제를 풀어헤쳐서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의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디딤돌이다"라며, "우리는 부처님께 늘 고마운 마음,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깨달음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사에는 유선호 국회의원, 허평환 남북평화통일연합회 회장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해 통일기원을 위한 만등기원에 힘을 보탤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문화 한마당

300여 지역 어르신 참여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은 문화예술봉사회 나눔마루와 함께 '사랑과 나눔의 문화예술공연'을 7월 2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어르신들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관장 도

완 스님의 개회를 시작으로 LIVE 가요제, 모노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고창군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문화적 혜택이 적은 농어촌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문화의 장을 마련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 영 보 이

다 茶 영 瑩 보 普 이 珥

-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원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서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산차 75,000원 / 38,000원
100g 산차 70,000원 / 65,000원
330g 병차 165,000원 / 99,000원 (450개 한정수량)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ungtea.co.kr / www.다영보

•판매원 : 마하물 02)732-1520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함장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